



[산업] LG전자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출시 06



Economy

코스피	2091.87 (+9.39)	코스닥	674.42 (-0.37)
금리 (연고채 3년)	1.43 (0.00)	환율 (USD-달러)	1177.60 (-1.70) (16일)

日 수출규제의 역설... D램 값 폭등

반도체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삼성·SK하이닉스 주가 상승 DDR4 8G 3.6달러 수준 '폭등'

日 추가규제, 분쟁 장기화 우려 관련 그룹사들, 비상경영 가동



16일 오후 일본산 제품 판매중단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365싱싱마트 매장 밖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 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했다. 공급과잉 해결로 가격이 반등하면서 시장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일간 외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해 업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기사 3편>

1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달여만에 4만6000원선을 돌파했으며, SK하이닉스는 2개월여만에 7만6000원을 넘어섰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는 예상 밖의 결과다.

일본 수출 규제가 오히려 국내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장도 안정됐다. 업계가 잇따라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는 가운데, 공급 불균형이 우려되면서 서버 업계도 물량 확보에 나서기 시작해 낸드플래시 뿐 아니라 D램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PC 부품 소매상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며 D램 가격을 수시로 올려 파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 평균 가격은 3.6달러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 3달러선 붕괴까지 우려됐던 점을 감안하면 폭등이라 부를만 하다. 낸드도 최근 상승 전환 후 128Gb MLC 기준 4달러를 다소 밑도는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오히려 호재로 인식된 셈이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키움증권 박우익 연구원은 "한계치에 근접한 3D 낸드 가격과 도시바 정전으로 인한 공급 추가 감소, 일본의 수출규제가 구매 심리에 불을 지피며 재고의 급격한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 실적 턴어라운드와 반도체 소재 업종에 집중할 것"을 추천했다.

실제 업계 피해도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눈치다. 그룹별로 총수 지휘체제 하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다. 이미 지난해 말 조짐을 읽고 발빠르게 움직인 곳도 있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 품목이 생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말 공급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여 대안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당장 수입이 끊기면 문제가 생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처를 늘려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럼에도 그룹사들이 비상 체제에 돌입한 이유는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 갈등 해소보다는 대립에 무게를



두면서 수출 규제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위기감도 더 커졌다. 이 부회장은 입국 직후인 13일 사장단을 소집해 스마트폰과 TV 등 비반도체 분야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일본에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 부회장이 일본 재계와 금융권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출장에서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제3인터넷은행' 이번엔 나올까 10월 접수... 연내 2곳 인가 예정

금융당국, 전원 탈락 없도록 지원 토스·키움, 재도전 아직 결정안돼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를 다시 추진한다. 오는 10월 신청절차를 밟아 연내 최대 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절차의 전체 큰 틀은 유지하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상반기와 같이 신청자 전원이 탈락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평가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 개수나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오는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최대 2개사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늦어도 연내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반면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바꿨다. 만약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답변 등을 해야 한다.

전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금감원과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왔다"며 "외평위원 비공개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주체가 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영국과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경영주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고배를 마신 토스와 키움 측은 예비인가 재도전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입 꼭 다문 신동빈, 롯데 사장단 회의 참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2편>

/손진영 기자 son@

상장주관사 규제 풀어 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금융위, 금융투자분야 규제개선 PEF·헤지펀드 지분계산 일원화 RP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 확대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상장 주관 업무를 제한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 계산방식을 통합한다. 증권사의 상장 주관 업무를 풀기 위해서다.

또 대고객 판매조건부채권(RP)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확대하고 K-OTC 청약증권금관리계약 체결 위무도 완화한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

본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2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그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한다.

현재 금융회사를 포함한 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상장 주

관업무를 할 수 없다. 예비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가 상장 주관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증권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상장주관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PEF지분율은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감안해 계산하지만 헤지펀드는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헤지펀드라면 지분율이 높아져 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사장단 회의 연 후... 日 수출규제 속 역할론 주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

4개 사업부문별로 20일까지 진행
계열사 대표·임원 참석 전략 발표
'日 수출규제' 실마리 공개 가능성

롯데그룹이 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19 하반기 VCM(옛 사장단회의)'를 시작했다.

일본을 방문했다 돌아온 신동빈 회장이 주재하는 이번 사장단 회의는 4개 사업 부문(BU) 별로 20일까지 진행된다. 16일 식품BU에 이어 17일 유통BU, 18일 화학BU, 19일 호텔&서비스 BU 순이다.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업군별 BU장 주재 하에 해당 BU의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각 사별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 및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방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신 회장은 VCM을 앞두고 열흘 이상 일본에 체류하며 노무라증권·미쓰호은행 등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관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롯데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재

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통인 신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얽힌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VCM을 통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는 사업군별로 논의된 내용을 그룹 전반에 공유하는 20일 통합 회

의에 신 회장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출근길에 일본 출장의 성과, 일본과의 가교역할 계획, 한국 내 일제 불매운동에 따른 사업상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이 이번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직접 연관은 없다. 그러나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아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 이란 분석이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제품군 전반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있어 롯데 측은 촉각

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불매운동으로 롯데그룹의 시가총액이 2주 만에 1조원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품BU 첫 발표자는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였다. 민 대표는 국내 제과 시장 현황과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을 소개하고 중장기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3개월 전부터 준비했으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재무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을 포함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VCM에는 매각이 결정된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롯데의 금융부문 4개사도 참석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향후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금융부문 4개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SKT, 세계최초 '5G 로밍' 서비스

SK텔레콤이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오는 17일부터 세계 최초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이 스위스 현지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이 스위스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오는 17일부터 세계 최초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직원이 스위스 현지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

'기준금리 인하' 8월에 무게

美 연준, 이달 금리인하 확실히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연 1.75%)될 지 또는 0.25%포인트 인하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8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하면서 인하 신호를 보낸 뒤 8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인하 소수의견이 조동철·신인철 위원 2명으로 증가해 실질적으로 인하와 같은 양상이 될 전망"이라며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정부 목표 하향쪽만큼인 2.5%에서 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1%에서 0.9%로 하향해 금리 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8월 인하를 기정 사실로 하되 동결을 사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연준에 앞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사례가 없고 정부의 정책 공조용 금리 인하 요구가 나온 상황에서 당장 금리 인하는 부담인 만큼 8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화정책 여력을 감안했을 때 7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만큼 7월보다는 연준에 후행한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기준금리는 연 1.75%로 낮고 사상 최저치와 격차도 50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금리 인하가 빨라질수록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정책 여력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7월 인하는 여력이 많지 않은 한국은행에 연내 추가인하라는 부담감을 남길 수 있다"며 8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추경 이어 내년 예산에도 지원책 담을 것"

당청 '日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

"외교채널 활용 日 부당조치 알릴 것"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청(더불어민주당·청와대)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한 모든 외교 채널 활용해 일본 정부 부당조치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편입채권 대상 확대... 투자자보호 만전"

>> 1면 '상장주관사 규제풀어...'서 계속

예컨대 사모펀드 상장예정인 A기업 지분을 40% 보유하고, 증권사가 이 펀드에 10%를 출자하면 PEF계산방식으로 증권사 지분율은 4%가 된다. 하지만 헤지펀드일 경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유 지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40% 지분율로 상장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합하고,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환자산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 체제가 근본적 혁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정하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 부처는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제

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1단계는 외교적 경로 협의, 2단계는 중재위 구성이다.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이견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범위도 확대한다.

RP는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시간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채권을 되사오는 매매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편입채권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등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편입채권은 현행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국제기구 및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및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로 확대한다.

안 과정은 "대상을 넓히되 등급이나

관련공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고객이 대상인 만큼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안과장은 "K-OTC는 결제시 증권 및 증거금이 확보된 등록계좌로 자동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소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日 ‘백색국가’서 韓 제외 예정... 韓美日 안보협력 ‘흔들’

이르면 이달 말 제외대상국 지정
전략물자 수입때마다 개별심사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 미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 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계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를

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

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본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이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日 수출규제, 다음 타깃은 ‘자동차·기계’”

대일의존도 높고 영향 큰 산업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성 확대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기계까지 수출 제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제3국 중재 위원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감안,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높

다는 것. 대상은 대일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수출 영향이 큰 산업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16일 관세청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전체 수입 중 일본 수입 비중)는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일반목적기계 18.7%를 각각 차지했다. 반도체는 8.3%이고 정밀기기는 19.9%였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첫번째 공격 타깃이 중고위~고위기술산업군 중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 기계 등이 우려된다”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선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기계 등의 산업들은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공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유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 및 산업에 파괴적인 양상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한·일 대립은 글로벌 경제 및 아시아 역내 지역 안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 모두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개연성을 내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 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도 한은의 금리인하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화하면 코스피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日 여행, 예약취소 잇따라... 항공사 울상

유류비·환율 상승도 겹쳐 실적 감소
대형·저비용항공사 모두 주가 하락세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으로 가려던 여행객의 예약 취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유류비·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업계 하반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50만명으로 6조 4000억원을 썼다. 반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2조 6000억원을 썼다.

일본내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 비중은 24%로 중국인(27%)에 이어 2위다. 일본 경제조치에 대해 한국이 일본 여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행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전체 여행상품 중 20~30%가 일본 상품인 여행사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10일 3일간 일본여행 신규 예약자 수가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인 400명으로 줄었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대형항공사,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일본노선비중이 대형항공사보다 큰 LCC업체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의한 영향은 현재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제주항공의 주가는 지난 1일 3만 2950원에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12일 2만8700원까지 떨어졌다. 16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150원 내린 2만7850원으로 마감됐다.

진에어도 같은 기간 2만1300원에서 1만7500원까지 하락했고 티웨이항공은 6640원에서 6040원으로 내려앉았다.

/정영우 기자 yw964@

윤석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쓴소리 “기업 필요한 자금공급 위축” 지적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증가 2.3% 불과
신용공급 축소, 경기 변동폭 키워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은행권이 여신유의업종 운영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은행권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가폭 3.8%에 미치지 못하는 등 조선·자동차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정체 상태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역경제의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은행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은행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미 기자 smahn1@

전자증명... 신용결제... B2B거래... 블록체인에 빠진 금융

시간·비용은 줄고 효율성 높아
핀테크 확산 등에 관련 사업 박차
기존 기술과 연계·보안 등은 숙제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금융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 주체들간의 검증 등 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거란 기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업계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우리은행 및 통신3사와 블록체인 전자증명 협약을 맺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위증명을 통해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직증명서, 정책자금 수령자격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제증명서 간편제출 서비스'를 검토중이다.

〈국내 금융권 블록체인 도입 현황〉

(자료=각 사 보도자료)

분야	기업	주요 내용
국내외 송금	우리은행	SBI리플 아시아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도입
	기업은행	'코빗'과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공동개발('16.3)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R3CEV참여 해외 18개 은행과 국제자금이체 시스템 구축('18)
	신한은행	'스트리미'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제휴('16.7) VISA B2Bconnect 가입, 블록체인 기반 B2B 송금 지원
가상화폐	KB국민은행	KT와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 사업화 추진
	우리은행	가상화폐 '위비' 코인 기반 결제서비스 제공('18)
보험	교보생명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범운영('17.11)
	금투협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Chain ID) 실시('17.11)
인증/AML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18.7)
	KB국민은행	코인플러그에 15억원 투자, 인증 및 송금 서비스 PoC완료('17)
	신한은행	KB국민카드, 블록체인 활용 간편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16.10)
	신한은행	골드바거레시 블록체인 활용한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16.8) 그룹 통합인증서비스 개발('18.1)
기타	KB카드, 롯데카드	간편인증, 간편로그인에 블록체인 적용
	신한은행	이자율 스왑거래결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시스템 개발
	KEB하나은행	국경 간 송금 및 결제를 위한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블록체인 기반 신용결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한카드는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향후에도 관련 사업분야를 확대해 광범위한 인증 및 결제,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전망이다.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본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산업을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가장 적합한 산업은 금융서비스 및 의료분야이며 세계적으로 금융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거래 주체들간의 데이터 상호교환과 검증 등의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핀테크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금융사가 비용절감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자체적인 암호화폐 코인 발행·공동인증·국경간 결제 등 일부는 상용화 단계까지 진척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간(B2B)·국경간 결제 분야가 블록체인을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가장 적합한 영역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블록체인 버블을 넘어 상용화의 시대로’ 보고서를 통해 “거래자 간의 절차가 복잡하고 중개자 간 신뢰가 중요한 다자간 금융거래 및 교역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며 “블록체인으로 결

제 참여자간의 거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실시간 감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수료 비용 절감과 결제 소요 시간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술·제도적 한계는 향후 과제

다만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법적 제도의 미흡함에 따른 상충 요소는 향후 금융업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란 지적이다.

김남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확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내 분산원장기술을 실제 금융거래에 도입했을 시 기존 기술과의 연계, 보안, 관리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를 검증·도입·확대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 요인 외에도 블록체인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영역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줄 왼쪽 네번째)이 16일 '신한은행·IT특성화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 및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銀, IT특성화고와 손잡고 '인재 양성'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10개 IT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은 IT 분야 인재 조기 육성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

행 임직원과 특성화고 학생 및 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변화된 디지털 시대에 맞춰 태블릿 PC를 이용한 협약서 서명과 QR코드 이벤트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행장은 협약식에서 “학생들은 IT 특성화고의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한은행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600만 자영업자 대상 CB사업 진출

〈신용평가〉

KCB와 신용평가사업 협업 MOU 자영업자 상환능력 평가 향상 기대

신한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손잡고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데이터 기반으로 600만 개인사업자 대상 전문 신용평가(CB·Credit Bureau)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신한카드는 KCB와 신용평가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김용봉 KCB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시장 개척 및 혁신 상품 개발을 위해 양사 역량 및 인프라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등급, 매출추정모형 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업을 위한 차별된 모형을 개발해 상품을 출시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등급 정보의 판매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용평가사업은 신한카드까지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파인에비뉴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김용봉 KCB 부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신한카드

난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됨에 따라 금융사 중 단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연내에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규모 및 휴폐업 정보뿐만 아니라 가맹점·지역상권 성장성 등의 미래가치 분석을 통해 기존 신용평가로는 미흡했던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자금 확대, 금리 인하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가 기

대된다. 더불어 대출자격, 금리정책 등 자영업자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CB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인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 대표 서비스인 '케이-스코어(K-Score)'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대표 신용등급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분야에서 다년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및 공공기관과 진행한 공동연구 경력 등 차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휴를 통한 신한카드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KCB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취지에 걸맞은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혁신금융 선도와 신한카드의 뉴비전전략과 연계한 차별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주택청약 신규가입 777명에 '경품'

KB국민은행 '7·7·7' 비대면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7·7·7' 비대면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KB스타뱅킹, 리브톡톡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1981~2000년생(20세~39세) 고객 777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쿠폰 1매를 경품으로 지

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현재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1.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환전도 페이코로”... ‘환전지갑’ 서비스

NHN페이코 KEB하나은행과 제휴

간편금융플랫폼 기업 NHN페이코는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페이코 환전지갑’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환전지갑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외화를 환전 신청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요 외화

인 달러(USD), 엔화(JPY), 유로(EUR)를 비롯해 뉴질랜드(NZD), 스위스(CHF), 싱가포르(SGD), 영국(GBP), 중국(CNY), 캐나다(CAD), 태국(THB), 호주(AUD), 홍콩(HKD) 등 총 12종의 외화를 취급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페이코에 등록된 모든 계좌를 이용해 필요한 외환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희망수령일에 인천국제공항지점과 환전소를 포함한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통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당일도 가능하다.

페이코 환전지갑은 환전해서 매입한 외국 통화를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기능도 마련했다. 특히 ‘목표환율 설정’ 기능을 제공해 본인이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는 시점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T '뮤직 멀티뷰' 출시 원하는 가수 골라 듣는 5G 음악서비스 선보여

SK텔레콤은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 5GX멀티뷰관에 5G 음악서비스 '뮤직 멀티뷰'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뮤직 멀티뷰는 음악공연을 시청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별도로 선택해 보고 들을 수 있는 뮤직 콘텐츠 서비스다. 예를 들어 옥수수 5GX관에서 5인조 밴드의 음악방송 공연을 시청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드러머, 보컬 등의 연주와 공연영상만 개별적으로 선택해 보고 들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KBS 1TV의 전문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시작으로 KBS 2TV '뮤직뱅크', MBC 에브리원의 '주간아이돌' 등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를 생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모바일 OTT 옥수수 5GX 멀티뷰관에서 독점 제공한다.

기존 음악방송 서비스가 카메라별, 또는 뮤직선별 영상보기와 360도 가상현실(VR) 시청 수준에 머물렀다면, 뮤직 멀티뷰는 영상과 연주뿐만 아니라 가수와 악기별 시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뮤직 멀티뷰 서비스는 18일부터 OTT 서비스 옥수수 5GX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쌍용차 침수 등 수해차량 10월까지 특별정비

쌍용자동차가 장마철 국지성호우 및 태풍, 게릴라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해차량 특별정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하며, 보험 미 적용 수해 차량은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서비스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 및 수해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물론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시동 조치 등의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폭우에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 및 변속기, 전기장치 등 차량의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LG U+ '5G 스마트팩토리' 中 小 企 到 擴 展

중진공과 손잡고 전국 보급확대
안산 중기연수원 스마트공장에
5G모듈·모터진단·작캠 등 적용
전주, 창원 등 전국 확대구축 추진

LG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5G 기반 스마트공장배움터 실증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판매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교육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5G 스마트팩토리 제공 대상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운영인력 6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위해 경기 안산의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조원석 상무(왼쪽)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자리본부장 김형수 이사가 5G 기반 스마트공장배움터 실증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교육장인 스마트공장배움터에 5G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전국으로 스마트 교육장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말까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배움터의 이동형 로봇, MCT설비 센서 등 실습용

설비에 5G 모듈과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인 모터진단, 작캠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 향후 신속되는 스마트공장배움터도 5G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팩토리 교육장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긴밀히

교류하고 5G 등 신기술 기반 창업자 지원 활동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G유플러스는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에 따른 수익 창출은 물론 자사의 5G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전국 공장 운영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안산 스마트공장배움터에서 교육 예정인 1만여명의 스마트공장 운영자들에게 5G 기반의 최첨단 실습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 조원석 상무는 "양측의 협력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배움터 5G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에 특화된 5G 스마트팩토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B2B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로템, 폭염도 견디는 열차용 견인전동기 개발

국내 첫 고내열성 절연물 활용
'클래스 220' 절연내열등급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용 견인전동기.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고내열성 절연물을 활용한 열차용 견인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높은 온도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Class) 220' 절연내열등급의 전동차 및 고속차량용 견인전동기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래스 220 절연내열등급은 국제규격에 따라 주위온도 대비 최대 섭씨 220도 높은 온도에서 절연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절연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현대로템은 높은 온도의 열차 운행 환경을 요구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에 걸쳐 국내 최초로 클래스 220 등급의 견인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견인전동기의 절연내열등급은 클래스 200

이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견인전동기는 주위온도 보다 220도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기능을 갖춰 열대기후 지역과 국내 여름철 폭염에도 열차 운행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경량화 설계로 기존 제품 대비 약 5% 중량을 저감해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개발로 현대로템은 클래스 220 등급을 받아 유럽(ABB, 지멘스), 일본(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글로벌 견인전동기 제작사들과 동등 이상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해 철도차량뿐 아니라 견인전동기, 신호장치, 추진시스템 등 각각의 부품을 별도 판매해 철도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장품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견인전동기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면서 국내 여름철 폭염에서도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인도, 튀니지, 이집트 등 열대기후 지역의 철도시장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해외수주와 매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15일 서울에서 진행된 SOFC 공동개발 협약식에 참석한 동현수 (㈜두산 부회장(왼쪽)과 필 콜드웰 세레스 파워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두산, 英 社 建 物 用 연 료 전 지 공 동 개 발

세레스 파워와 협약 체결

㈜두산이 영국에서 연료전지를 공동 개발한다.

㈜두산은 16일 영국의 연료전지 기술업체인 세레스 파워와 5~20kW 규모의 건물용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동현수 (㈜두산 부회장)와 필 콜

드웰 세레스 파워 대표 등이 참석했다.

SOFC는 연료전지의 한 타입으로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전력 생산효율이 높고, 촉매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회사는 PEMFC(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 20kW 이하)와 PAFC(인산형 연료전지, 440kW) 타입의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건물용 SOFC 이외에 발전용 SOFC 기술 확보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SK실트론, 발달장애 훈련생 17명 실무투입

대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수료식
22일부터 환경미화 등 업무 수행

SK실트론이 발달장애인들을 새로 맞이했다.

SK실트론은 16일 구미 2공장 창의관에서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취업연계 특화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훈련센터 훈련생 17명이 SK실트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채움(주)의 취업연계 특화훈련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훈련생들은 오는 22일부터 SK실트론에 출근해 환경미화와 사업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훈련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구미 파견훈련장에서 발달장애 전문 특화 훈련을 받았다. 경북지사와 구미장애인복지관에 현장적응을 지원 받았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김연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훈련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구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juk@



SK실트론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일할 예정인 발달장애인 취업연계 특화훈련생 수료식을 진행했다. /SK실트론

가전의 진화 어디까지 필스너·에일 등 수제맥주도 집에서

LG전자 '홈브루' 출시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캡슐·물만 넣으면 간단하게 제조 발효부터 숙성·보관까지 자동진행 인버터 컴프레서로 전기료 부담 ↓

LG전자가 의류관리기, 건조기, 피부관리기 등 신가전을 넘어 수제 맥주 제조기를 통해 퍼플오션 가전 시대를 연다. 퍼플오션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전략이다.

LG전자는 16일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출시했다. LG 홈브루는 캡슐과 물을 넣으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독일속담에 '가장 맛있는 맥주는 양조장 굴뚝 밑에서 갓 나온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LG 홈브루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맥주를 원하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모델이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 홈브루의 주요 타깃층은 맥주 마니아다. 가격이 399만원으로 고가인 만큼 맥주를 진정으로 애정하는 소비자만이 LG 홈브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홈브루는 많이 판매해서 이윤을 낸다는 목적보다는 5년, 10년 후 변할 미래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출시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LG 홈브루는 전 세계의 맥주 맛을 찾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거듭했고, 30톤 이상의 맥주를 버리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LG 홈브루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인디아 페일 에일, 페일 에일, 스타우트, 위트, 필스너 등 인기 맥주 5종을 제조한다. 맥주 캡슐 가격은 3만 9900원이다. 캡슐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소비자 취향에 맞춰 조합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캡슐도 검토 중이다.

사용자는 종류에 따라 2~3주 후 약 5리터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밀맥주인 위트를 만드는 데 약 9일이 소요되며, 발효가 가장 오래 걸리는 라거맥주인 필스너는 약 21일 걸린다. IPA, 페일에



LG 홈브루로 제조한 스타우트. /구세윤 기자

일, 스타우트 등은 2주 안팎이다.

홈브루의 제조 노하우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 적용 ▲전통 있는 영국 제조사와 협업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LG전자는 홈브루에 최적의 온도, 압력, 시간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제품 전면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 제조과정을 볼 수 있다. 완성된 맥주는 최적의 보관 온도인 6도(°C)와 차가운 맥주를 위한 4도 중 선택해 보관 가능하다.

LG전자는 98년 전통의 세계적 몰트(싹이 트 보리나 밀로 만든 맥즙) 제조사인 영국 문톤스와 함께 프리미엄 원료를 담은 캡슐형 맥주원료 패키지를

공동개발했다. 캡슐 패키지는 맥주의 주원료인 맥즙팩과 함께 발효를 돕는 효모,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홉오일, 플레이버(맥주향) 등 3개의 캡슐이 한 세트 구성돼 맥주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한다.

신선한 맥주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온수살균시스템을 적용해 맥주를 만들기 전, 만드는 도중, 완성한 후에 내부 유로를 살균한다. 또한 6개월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방문해 내부 살균, 외부 세척, 필터 교체 등 제품을 관리한다.

맥주 5리터를 만드는 데 드는 전기료는 약 1374원이다. LG전자는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전기료 부담을 낮췄다.

LG 홈브루는 일시불 구입과 케어솔루션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3년간의 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일시불 가격은 399만 원이다.

LG전자는 홈브루를 국내에서 먼저 출시한 후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구세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친환경·안전 다 잡은 그린케이블 잇따라 선보

Advertorial Corner

LS전선, 매연발생 원천 차단 불에 강한 내연·내화 제품도

LS전선이 최근 '그린 케이블'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여 친환경적이면서도 불에 잘 타지 않아 안전도 지켜낸 제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통신 케이블은 화재 뇌관 역할을 하거나 대형 인명 피해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기술적 한계와 법령 미비 때문이다.

LS전선은 최근 매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선박용 육상전원공급 케이블을 출시했다. 선박이 항구에서 자체 엔진 대신 육상 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컨테이너선 1척이 정박중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디젤 승용차



LS전선이 친환경적이고 화재 위험도 최소화한 '그린 케이블'을 잇따라 출시 중이다. 사진은 LS전선이 개발한 친환경 육내용 케이블 'H FIX+'.

/LS전선

5000만대, 초미세먼지가 트럭 50만대 분량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했다.

불에 잘 안타는 내연제품과 고온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내화 제품, 화재에 강해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케이블도 속속 선보였다. 유독가스가 화재시 인명사고 주 원인임을 고려할 때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 육내용 케이블 'H FIX+(플러스)'는 기존에 자주 쓰이던 폴리염화비닐(PVC) 케이블보다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연기 공기 투과도도 높여 시야 확보도 용이하게 했다.

민간 건설사는 친환경 케이블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일부 공공 건설사는 여전히 PVC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전언이다.

LS전선은 내화 특성을 높인 케이블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1050°C에서 120분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최근 발생했던 것처럼 통신사에 화재가 일어나도 통신과 신호 전송 등 기능을 수시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국내법상으로 케이블 내화 기준은 750°C, 90분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950~1050°C, 120~180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용기자 juk@

위니아담채·위니아대우 '창립 20주년' 이벤트 "7월 구매 고객님 경품 받아주세요"

퀴즈 참여고객 대상 한달간 진행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가 구매 고객에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고객에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경품은 7월 한달간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구

매한 후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나 위니아샵 이벤트 팝업창으로 구매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추가 추첨도 있다. 8월 26일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에어컨과 TV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

SNS에서는 사명변경 이벤트로 매일 20명에 커피 기프트콘을 뿌린다. 위니아공식 블로그에서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용기자

KT, 영농+태양광 융복합 사업 본격화

연중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 가능 태양광 발전으로 안정적 수익까지

KT는 태양광 일체형 버섯 재배 실증을 마치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태양광 융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9월 청운표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청운농장에 지붕 태양광 일체형 재배사를 구축해 버섯재배 및 각종 인허가 실증을 진행했다.

이번 실증으로 표고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 설계를 확보했고, KT기가스마트 팜 환경제어를 통해 예측했던 생산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또 재배사 건축부터 태양광 발전 인허가·준공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KT가 자체 개발한 영농태양광 사업

은 지붕 태양광 일체형 식물재배시설이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단열성능 및 공조 설비가 탑재돼 있다. 이 때문에 연중 최고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붕 태양광 발전으로 안정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KT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운영 솔루션을 통해 재배사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₂) 등 식물 재배환경을 제어하고 태양광 발전현황을 24시간 원격관제, 지능형 CCTV를 통해 재배사 안팎의 보안 관리까지 지원한다.

KT는 실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보 농민이 겪는 어려움과 투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부지의 선정, 수익성 분석, 표준설계 제공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

신형 파나메라 GTS, 국내 시장 '첫발'

포르쉐코리아, 스포츠카 공식 출시

포르쉐코리아는 신형 파나메라 GTS를 16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파나메라 GTS는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포르쉐 스포츠카 고유의 강력한 성능과 정통성을 계승했다. 3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다이내믹 새시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4리터 8기통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460마력, 최대 토크 63.3kg·m의 힘을 낸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 장착된 모델로 제로백 시간은 4.1초에 불과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292km다. 동력은 8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4륜 시스템에 전달되는 구조여서 구동력 손실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는 더 스포티하게 조정됐고 10mm 낮아진 스포츠 새시로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더 커진 브레이크는 전·후륜 직경이 각각 390mm, 365mm에



신형 파나메라 GTS /포르쉐코리아

달해 뛰어난 제동 성능을 발휘한다.

블랙 컬러 도장된 새틴 마감의 20인치 파나메라 디자인 휠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신형 파나메라 GTS는 4인승과 5인승 2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48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한 가격은 2억150만원이다.

/정연우기자 ywj964@

- 도전은 늘 두려운 것
- 도전은 늘 두근거리는 것

도전하는 삶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니까

당신의 더 행복한 LIFE를 위해

도전하는 LIFE IS GOOD



와이진 (Y.ZIN) 국내 최초 여성 수중 사진 작가.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이제껏 누구도 담아내지 못했던 신비로운 수중 세계를 표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자연색 그대로의 완벽한 색을 구현하는 LG OLED TV를 통해 작품을 모니터링 중인 그녀의 모습.

HUG, 규제마련... 날뛰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 잡았다

서울 분양가 2년만에 38% 급증 HUG,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기준 '1년 이내 분양' 등 세분화해 적용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279만원에서 2018년 12월 3140만원으로 38%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272만원에서 6045만원으로 41% 상승했다.

직방 자료에서도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뛰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2959만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된 서울 신규분양 단지>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총가구수	분양시기	건설사
e편한세상 백련산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	59~84	358(120)	분양중	(주)삼호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	41~84	514(153)	7월	대우건설
등촌 두산위브	강서구 등촌동	31~150	217(156)	7월	대한토지신탁(사업대행)
보문2구역 리슈빌(가칭)	성북구 보문3구역 재개발	31~84	465(211)	7월	계룡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닥터아파트 및 각사

원으로 2년 전인 2016년(2125만원)에 비해 39% 올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 10년 이내 기준'으로 나눴다. 준공 10년 초과시엔 생활권을 확장해서 비교한다. 1년 이내 분양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 1년 초과한 분양사업장이 있는 경

우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분양한 사업장이 없고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기준은 지난 달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차지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HUG의 분양가 규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분양가 상승폭이 비규제지역에 비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가격 제한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가시화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정된 분양가로 신규분양에 나서는 단지들로 (주)삼호는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응암 제4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e편한세상 백련산' 358가구 중 84㎡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달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41~84㎡ 514가구 중 153가구를, 대한토지신탁(사업대행)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서 '등촌 두산위브' 31~150㎡ 217가구 중 31~84㎡ 156가구를 선보인다.

계룡건설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대에서 보문2구역 도시정비사업인 '보문2구역 리슈빌(가칭)' 31~84㎡ 465가구 중 2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8일까지 코스피200(KOSPI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주가연계증권(ELS) 12174회'를 총 100억 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 (6·12개월), 90% (18·24개월), 85% (30·36개월) 이상이면 연 4%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채윤정 기자

KB증권 ELS 4종, DLS 2종 공모

KB증권은 상하이선전300(CSI3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ELS 4종과 파생결합증권(DLS) 2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KB에이블 ELS 932호(3인덱스 리자드 울트라스텝다운형)는 CSI300지수, 닷케이225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CSI 300은 중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 지수로 중국 A주 중 시가총액, 거래대금,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형주 300개의 유동주식 시가총액 기준 지수다.

/김유진 기자

미래에셋대우 영통WM 내일 투자설명회 개최

미래에셋대우 영통WM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영업점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WM컨설팅본부 한상춘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와 '글로벌 경제 전망과 최근 현안 점검'을 주제로 강의한다.

/채윤정 기자

규제 빚겨간 '대·대·광'... 이젠 지방 아파트가 뜬다

<대전·대구·광주>

상반기 35개 단지 90% 1순위 마감 대구 '빌리브스카이' 경쟁률 135대1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대광(대전·대구·광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상반기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 이달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서울 및 수도권 경우 정책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상반기 경기도에서 분양된 단지는 42개 단지로서 이 가운데 전세대 1순위 마감률 기록한 단지는 불과 13곳에 머물렀다. 전체 분양 단지 중 70%가 1순위 미달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대광 지역의 청약 분위기는 달랐다. 대부분 전세대 1순위 마감률 기록했다.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지난 상반기에 분양된 단지는 총 35개 단지로서 이 중 4개단지만 전세대 1순위 마감률 하지 못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90%가 전세대 1순위 마감률 기록

<7월 대·대·광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건설사	분양시기
대전 동구 마을회관길 129일원	신흥 SK VIEW	SK건설	7월
대구 동구 신천동 193-1일원	신천센트럴자이	GS건설	7월
대구 수성구 옥수동 25번지	대구 수성 한신더휴	한신공영	7월
광주 북구 중흥동 364-1번지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제일건설(주)	분양중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SK VIEW' 이미지.

한 것. 최고경쟁률 역시 대대광에서 나왔다. 상반기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대구 '빌리브스카이'가 평균 134.9대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아이파크 시티'가 8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도 '화정 아이파크'가 평균 6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대광 지역의 부동산 열기는 부동

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대광 지역에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10% 규제 완화, 중도금대출 2건 등이 허용되고 무엇보다 전매제한 6개월로 단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6일 "대전, 대구, 광주는 최근 원도심 중심의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대대광 지역이라면 내집마련을 고민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SK건설은 7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회관길 129 일원에 '신흥 SK VIEW'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39~84㎡,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88가

구 규모다. 이 가운데 109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9㎡ 582가구 ▲74㎡ 208가구 ▲84㎡ 306가구로 중소형으로만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대동역과 신흥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신흥 SK VIEW'는 7월 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GS건설은 대구에서 '신천센트럴자이'를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총 8개동, 553가구 규모다. 단지는 모든 세대가 전용 84㎡의 중소형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단지 바로 인근에 신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수성구와 맞닿은 동대구에 위치해 수성생활권 접근성이 좋다.

제일건설(주)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중흥3구역(364-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짓는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규모다. 총 1566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857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단지 바로 앞에 효동초가 위치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동신중, 동신고, 동신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한다.

/이규성 기자

상반기 유상증자 4.3조... 58% 줄어

예약원, 상장사 139곳 29% ↓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총 4조31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0조2875억원보다 58.1% 줄었다.

유상증자를 한 상장사 수는 139개사로 29.4% 줄었고, 증자 주식 수는 14억 700만주로 19.0% 감소했다. 유상증자의 감소는 지난해 상반기 증시가 호황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장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정 방식별로 살펴보면 제3자배정이 2조8613억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주배정(1조2073억원), 일반공모(245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자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신한금융지주(7500억원)였고 한진중공업(6874억원), 두산중공업(4718억원), 두산건설(3154억원), 웅진진크빅(31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무상증자 규모는 32개사, 2억1499만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9%, 50.9% 감소했다. 무상증자 주식 수가 가장 많았던 법인은 모다노칩으로 3986만주를 발행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키움증권 美주식 첫 고객에 40달러 지원

키움증권은 미국주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객에 대해 40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주식에 관심이 있으나 경험이 없어서 거래하기 두려운 고객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대상은 이제까지 한번도 키움증권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해 본 적이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40달러가 신청 계좌에 입금되며 입금일로부터 달력 기준 30일 이내에 40달러 이상 매수를 해야 한다. 체험 지원금이기 때문에 거래



를 하지 않거나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조치 된다.

한편 그동안 미국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던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차츰 커지고 있다.

/김유진 기자

보험료 저렴한 무·저해지 판매 ↑·· 고개드는 불안전 판매

3년새 급성장·· 불안전 판매 우려도
일반 상품보다 10~20% 저렴 '장점'
중도 해지 때 환급금 리스크 따져야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시장이 3년 새 급성장했다. 보험료를 낮춰 가입을 늘리려는 보험사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성은 좋은 상품을 찾는 고객들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만 집중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불안전 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개발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처음 출시된 무·저해지 보험은 첫째 3만건을 기록한 후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신계약 건수	34	321	853	1,764	1,080
생명보험	34	266	630	935	664
손해보험	-	55	223	829	416
신계약(초회)보험료	58	439	946	1,596	992
생명보험	58	403	795	1,025	609
손해보험	-	36	151	571	383

로 급증하고 있다. 신계약이 늘면서 초회보험료도 2015년 58억원,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5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3개월 만에 108만건의 신계약이 체결, 초회보험료만 992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장기보험을 주로 파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생보업계가 보험료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영향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보험

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납입기간이 기준 20년 이하인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무·저해지형을 적용할 수 있던 것을 모든 보장성으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2015년 7월 업계 최초로 종신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을 도입한 상품을 출시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메리츠화재가 2016년 7월 건강보험에 저·무해지 환급금 기능을 적용한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10~20% 싼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을 40세 남자가 2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납입완료 시점 이전 해지 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저해지)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다. 해지 환급금이 없는(무해지) 경우는 보험료가 21.9% 저렴하다.

문제는 중도 해지한 경우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불안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 환급에 대한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

을 경우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서도 무·저해지 환급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입 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된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개발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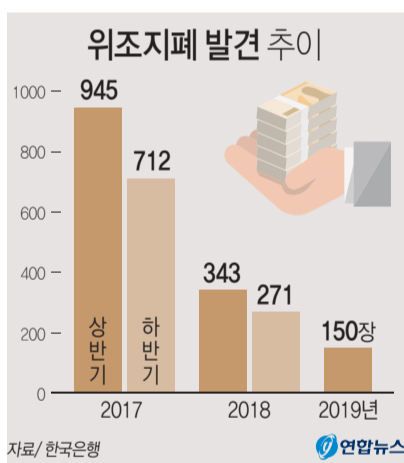
상반기 위조지폐 150장 통계 작성 이래 '최저' 기록

한은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대량 위조사태 없고 구권 지폐 줄어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위조 사태가 없었던 데다 5000원권 구권의 위조지폐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은이 직접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50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반기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343장) 대비 193장(56.3%), 전월(271장) 대비 121장(44.6%)이 각각 줄었다.



위조지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새로운 대량 위조사태가 없었고 5000원권 구권(기번호 77246 포함)의 위조지폐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6월 검거된 위조범이 제작한 5000원권 구권 위조지폐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만 4000여장이 발견됐다.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만원

권 57장(38.0%) ▲5000원권 53장(35.3%) ▲5만원권 35장(23.4%) ▲1000원권 5장(3.3%) 순이었다. 5만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종의 위조지폐가 감소한 가운데 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위조지폐 대부분(93%)은 금융기관(101장)과 한은(38장)이 발견했다. 나머지는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경우로 11장이었다.

금융기관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 101장 중 89장(88.1%)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장(63.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장(14.9%), 인천 10장(9.9%) 순으로 조사됐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 개수는 32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5만원권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11개), 1000원권(3개)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손상화폐 소폭 증가·· 대체비 483억

올 상반기 3억5000만장 폐기

올해 상반기 손상폐 폐기한 화폐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2조 272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3억 1000만장(2조 2399억원) 대비 4000만장(13.2%)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83억원이었다.

은행권은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이 폐기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1억8000만장(은행권 폐기액의 53.7%), 1000원권 1억3000만장(39.3%), 5000원권 2000만장(5.4%), 5만원권 1000만장(1.6%)으로 집계됐다.

주화는 1340만개(12억원)가 폐기됐다. 화종별로는 10원화 600만개(주화 폐기액의 44.9%), 100원화 470만개

(35.3%), 50원화 150만개(11.4%), 500원화 110만개(8.4%)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반 국민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3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0억5000만원) 대비 5억8000만원(18.9%)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김희주 기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세번째)과 강래오 셰프(왼쪽 두번째), 출연자들이 '우리 양파·마늘을 부탁해' 영상을 통해 양파, 마늘 농가를 응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농협은행장, 양파·마늘 농가 돕기 동참

홍보 영상으로 소비 촉진 도와

NH농협은행은 SNS 홍보모델인 강래오 셰프와 이대훈 은행장이 최근 과일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마늘 농가를 응원하는 '우리 양파·마늘을 부탁해'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장과 강 셰프는 양파, 마늘을 활용해 양파쌈, 통마늘새우를 직접 요리하고, 양파·마늘의 효능 등을 설명하며 양파와 마늘 소비촉진을 통해 어려운 농가 돕기를 당부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SNS

S를 통해 영상 속 양파쌈, 통마늘새우 요리의 이름을 지어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마늘2.5kg, 양파3kg, 삼겹살500g 세트'를 제공한다.

이 행장은 "국민들이 양파와 마늘을 활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양파·마늘 소비를 통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협은행은 우리 농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협 본연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GB금융·산업인력공 NCS 활용·성과 창출 맞손

DGB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소·중견기업 활용과 성과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DGB금융그룹은 DGB데이터시스템을 통해 NCS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활용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GB금융그룹의 NCS 기반 블라인드채용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한다. 대구·경북권 중소·중견기업의 NCS 사업 참여를 확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과 지역



DGB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소·중견기업 활용과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DGB금융그룹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IPO 간담회

글로벌 톱기업 80%가 고객사... “신소재 개발 주력”

정밀화학전문 | 한국바이오젠 |

맞춤형 정밀화학 공급 기술 갖춰
건축·전자·의료 등 적용산업 많아
R&D 확대... 전기차 진출도 준비
주당 공모 희망가 4700~5700원



부태용 한국바이오젠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젠

부태용 한국바이오젠 대표는 “글로벌 우수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세계적인 정밀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기업인 한국바이오젠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부태용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

인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겨냥해 방열 소재, 2차 전지 전해질, 자동차용 접착제 및 실링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바이오젠은 당초 바이오 기업

으로 2001년 3월 설립됐지만 실리콘 소재 개발로 사업을 전환, 현재 바이오 비중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정밀화학 전문 기업이다. 건축, 전자, 항공, 에너지, 화장품, 의료 바이오, 산업공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기능성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현재 실리콘 시장에는 미국의 다우(DOW) 및 독일의 바커(WACKER) 등이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업체와 경쟁 관계이면서도 이 기업들을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톱 5 중 4개사에 제품을 공급해 협력관계로 자리잡고 있다.

이 회사는 각 고객사가 원하는 성질을 구현하도록 분자를 설계하고 이를 합성하는 제조공정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 및 생산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기업들과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건축 분야의 실란트 교제, LED 봉지재로 쓰이는 실란 노머, 항공에서 쓰이는 활주재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고층 건축물 등 특수 구조용 소재로 활용되는 실리콘 융합 소재·실리콘 레진, 실리콘 폴리머, 정밀 화학 분야의 중합방지제, 바이오 분야의 합성 아미노산 등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64억 3385만원, 영업이익은 28억 7270만원, 당기순이익은 21억 3006만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0%, 29.8% 늘었다. 매출 비중은 내수가 65%, 수출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미국·독일 등에 국한된 데

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국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젠의 총 공모주식수는 178만 4500주다. 신주발행 142만 2000주와 구주매출 36만 2500주로 구성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4700원~5700원이며, 이번 공모에서 신주발행으로 최대 약 81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회사는 오는 17~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일반 청약받을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스마트폰용 특수필름·복합소재 ‘절대 강자’... 베트남에 신공장

스마트폰필름제조 | 세경하이테크 |

‘데코 필름’ 차별화 MDD공법 등
관련 특허 다수 취득 ‘기술력 입증’
폴더블폰 수요 증가로 수혜 기대
주당공모희망가 4.6만~5.2만원



이영민 세경하이테크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경하이테크

스마트폰용 특수필름 및 복합소재 가공기업 세경하이테크가 이르면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세경하이테크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7~18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 후 22~23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희망가는 4만 6000원~5만 2000원으로 총 공

모금액은 밴드 기준 460억~520억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세경하이테크는 스마트폰용 특수 필름 및 복합소재가공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모바일 필름·테이프(Mobile Film·Tape), 투명한 접착이 필요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옵티컬 필름(Optical Film), 스마트폰 후면 디자인에 사용되는 데코 필름(Deco Film) 등이 있다. 제품들은 글로벌 스마트폰 세트 메이커(Set Maker)에 공급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데코 필름(Deco Film)은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는 MDD 공법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색상 구현, 높은 생산력을 갖춰 다품종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디자인 역량과 이를 구현할 잉크 개발 역량도 갖췄다. 회사는 2011년도 설립한 기술연구소에서 잉크 제조 관련 특허 8건, 생산 관련 특

허 15건을 취득하며 경쟁사와의 기술력 차이를 벌렸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세경하이테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매출액이 2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 기준 15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5% 성장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1024억원, 영업이익 179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7.5%를 기록했다.

세경하이테크는 향후에도 5G, 폴더블폰 등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에 예상되고 고급 화장품 용기, 신용카드, 차량 내장 및 액정 등에 데코 필름 등을 사용해 전방 시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새로 개발하고 있는 3D글라스틱(P

CPMMA)은 합성 소재를 사용해 내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데코 필름 제조 역량을 활용해 심미성을 겸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민 세경하이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5G·폴더블 등 수요에 대처하고 소재 산업에 전문성을 둔 베트남 신공장 건립에 투자해 회사의 외형과 내실을 키우겠다”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IT 복합소재와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두바이엑스포 용역에 대기업 참여 논란... 코트라 “입찰과정 공정”

거래소, 메릴린치증권에
회원제자금 1.7억 부과“기자회견으로 입장 표명 부적절
중소기업이 협상에 불성실” 반박

KOTRA(코트라)가 16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전시조합)에서 진행한 ‘중기 숨통 죽이는 KOTRA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시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가 전시·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할 것을 요구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에 대기업 참여시켜 1순위였던 중소기업에 배제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문

제 삼았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 2월 두바이엑스포 용역 공모를 통해 1순위는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 시공테크를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

전시조합은 코트라가 이 과정에서 피앤 및 시공테크와의 협상을 일부러 결렬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시물 실제 제작 등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을 요구한 후 두 업체가 15일 만에 이를 지키지 못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80개 항목의 협상 내용은 이노션에도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앤 등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

상 결렬 이후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5월 13일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5월 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15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기존 입찰 기간에 준비된 내용을 기술제안서에 요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용역 심사위원들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번 컨소시엄에서 항소해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용역사업에서 탈락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또 판로지원법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예외’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판로지원법에는 실물모형, 전시부스 설치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끼리 경쟁 입찰하도록 했으나 국제엑스포는 성격이 다른 업무라는 것이다. 무

역전시회는 중소기업 경쟁 입찰 항목이지만 입찰가가 10억원을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두바이엑스포의 경우 용역사업 추정가격이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3대 국제행사인 국제엑스포 행사 준비를 대기업에 맡긴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트라는 “기존 여타 응찰자중 중소기업에 전시부문을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사 선정의 자율성과 형평성에 반하며, 협력사(하도급 포함) 구성은 계약 상대방의 전시연출 및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특정기업을 하도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자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외국계 헤지펀드 C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www.pdna.co.kr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DNA 피부재생 강화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하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생리활성물질 면역증강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센터 **070-4870-0708**

‘反 유튜브연합’ 토종 OTT 뭉쳤다… 역차별 해소에 주력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한국 OTT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내년 시장규모 1410억 달러 전망
“망 이용료·저작권 침해 등 발생
발전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해야”



성동구 한국 OTT 포럼 초대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국내 공세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토종 OTT들이 뭉쳤다. OTT 산업 연구뿐 아니라 OTT 도입 후 전개되는 시장 상황 변화,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국내 OTT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16일 한국 OTT 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OTT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OTT 포럼은 핵심 미디어로 부상한 OTT에 대한 국내 첫 전문 연구단체다. OTT를 둘러싼 방송 시장, 이용자 보호, 국내외 환경 분석과 함께 정책 등을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성동구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았다.

성동구 회장은 “속보성, 오락성을 무기로 신문을 압도하며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한 텔레비전이 시청자들의 공간·시간을 제약하는 한계를 비집고 OTT가 그 자리로 영역을 넓혀갔다”며 “OTT 산업 성장 측면에서 시장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억 달러(약 67조원)다. 202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해 약 1410억 달러(약 1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빠른 시장 재편으로 해외 공략을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 OTT 서비스는 제공 채널 부족, 비싼 가격, 서비스 안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184만명, 유료 결제 금액은 241억원으로 추

정된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63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동월 대비 192% 성장한 셈이다.

국내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창구를 통해 OTT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미디어 시장이 케이블TV, IPTV 등으로 혼재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OTT포럼은 국내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 자리에서는 OTT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OTT 서비스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경우

망 이용료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규제가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OTT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방송법 규제시스템은 사후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해 관련 규제조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의 도입 및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케이블TV 가입자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무한 경쟁에서 동향을 가늠하고 지형을 내다보는 지도와 망원경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역시 제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카카오벤처스 AI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투자

카카오벤처스가 클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4억원을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셀렉트스타는 시드 라운드 투자를 마무리했다. 셀렉트스타는 카이스트 출신 공동창업자로 구성돼 작년 12월 카이스트의 스타트업 경진대회 E5에서 최종 우승한 팀이다.

셀렉트스타는 기업이 의뢰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수집 및 가공한다. 자체 모바일 앱 ‘캐시미션’에서 사용자는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환전 가



카카오벤처스가 클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4억원을 투자했다. /카카오벤처스

능한 포인트를 보상 받는다. 특히 셀렉트스타는 철저한 데이터 검수 과정을 중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중기벤처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서울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 내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서울중기청에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주요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서울지역 수출지원협의회 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기청은 또 이번 추경에 신청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서울중기청은 해당 지원자금의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탱크웨어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000 프로’

탱크웨어는 최적의 영상 녹화화질을 지원하는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000 프로(PRO·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후방 2채널 FHD 블랙박스로 핵심 기능인 영상 처리, 저장, 주차녹화 지원은 물론 IPS 패널을 새롭게 적용해 차량 내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실시간 영상확인이 가능하다.



H22 쿼드코어 CPU와 소니 스타비스 CMOS IMX327 센서, 탱크웨어의 영상조정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진 기능이다. 터널, 주차장 진출입 등 역광을 포함한 다양한 조도 변화에서 빛 번짐을 최소화한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야간화질도 자사 ‘슈퍼나이트비전’ 대비 4배 이상 밝기와 선명도를 구현하는 ‘울트라나이트비전’을 적용해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도 깨끗한 주행, 주차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아이나비 QXD3000 프로’는 FHD의 선명한 영상화질과 더불어 ‘트루 HDR’ 기능을 적용했다. 최신 임바렐라

네이버와 사랑에 빠진 중기부장관

“데이터는 미래 권력… 네이버와 상생 추진”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 100일

한때 ‘골목상권 침범’ 주범 인식
現 ‘상생과 공존’ 기업 자리매김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

중기부 2대 수장으로 취임한 뒤 줄곧 ‘연결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하면서다.

한때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주범으로 인식됐던 네이버가 박 장관으로 인해 상생의 아이콘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이 최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이슈 사이에서도 네이버가 등장한다.

100일 전인 4월8일 취임한 박 장관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13일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 주기 위해 부산으로 달려갔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2013년부터 파트너스퀘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중기부-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간 협약 체결을 통해 네이버는 박 장관의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대표하는 자발적 상생기업, 즉 ‘자상한 기업’의 첫 사례가 됐다. 네이버가 첫 테이프를 끊은 자상한 기업은 이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2017년 출범 후 대형 포털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업체들을 놓고 단단히 버리고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중기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부처 업무보고 당시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당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나 입찰식 광고(베딩식 광고)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침범 이슈가 한참 불거지던 2010년대 초반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가해 기업의 하나로 지목받았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하겠다고 50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인희망재단을 2014년 초 만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등을 과감히 지원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네이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선 중기부가 연결자로서 ‘자상한 기업’을 발굴→연결→홍보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구글이나 아마존 등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AI도 사람과 같아 오랜시간(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면 점점 똑똑해진다. 언제까지(해외에 빅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어디 한 곳에 종속되면 안 된다. 데이터는 미래 권력”이라며 “다행히 우리는 네이버를 갖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혁신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구축, 이들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활용해 제조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法 금지’ 국가는 극소수... 모호한 개념 혼란 불가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피해자에 유급휴가 등 보호하고 가해자엔 징계, 근무지변경해야
신고자·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 댄 사용자에 3년이하 징역, 벌금 부과
괴롭힘에 질병 생기면 ‘산재’ 인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노동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사례, 취업규칙 작성 관련 사항 등을 발표한다.

◆예방·징계 시스템 구축에 초점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6일부터 시행

- 행위자**
 -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용자(파견업체 사업주 포함) 및 근로자
 - 나이, 학벌, 성별,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 모든 관계에서 가능
- 행위 장소**
 -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 없음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도 해당
- 행위 요건**
 - 문제되는 행위가 세 가지 핵심 요소 모두 충족해야 인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자료/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만 두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병원의 인심 간호사에 대한 ‘태움’ 관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게 계기가 됐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모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변백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육아휴

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라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 행사를 앞두고 팀원에게 디자인 보고를 시켜놓고는 미흡하다며 계속 보안을 지시해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총리 순방외교, 기업 경제활동 지원 한 몫”

文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주제

“정부의 외교비중 크게 높아져 정상급 외교, 총리와 역할분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대부분 국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가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들

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 외교(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역시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우승준 기자 dn114@

인사담당자 53%만 “괴롭힘 금지법 대비”

36% ‘대비 안해’, 11% ‘금지법 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84명, 직장인 1203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53%만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36%는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11%는 ‘모른다’

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직장인의 52%는 ‘모른다’고 답해 일반 직장인들의 개정 법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용수 기자 hys@

文-與野 5당 대표 ‘日 수출규제’ 방안 모색

내일 청와대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됐다”며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운을 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자 함”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인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산재 사망사고 감소’ 긴급대책 추진

안전보건공단, 점검·순찰 시행 200여개 점검반 현장 불시점검

안전보건공단이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일시 전환해 본격 시행한다.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한 200여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락, 끼임, 질식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의

39%(376명)를 차지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인력의 80%를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 패트롤카 27대를 신규 투입하여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순회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원격으로 빈 강의실 소등... 전기차 자율주행셔틀버스...

서울과기대, 미래캠퍼스로 진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형 대학 캠퍼스로 변신한다. 학생이 없는 빈 강의실이나 실험실의 전원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등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빌딩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셔틀버스와 소형 모빌리티 카트를 개발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과기대는 15일 교내 테크노큐브동에서 교육부 선정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을 테마로 한 대학중점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에는 서울시, 한국연구재단, 13개 중소기업과 대학 석·박사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학중점연구소는 2028년까지 9년간 3단계로 나눠 스마트빌딩, 전기차 자율주행, 고신뢰도 ESS(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에너지타운 지능형 플랫폼, 전기차 충전 로봇 등의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서울과기대 프론트어관과 미래관을 스마트빌딩으로 전환한다.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과 IoT(Internet of Things) 센서가 설치되면 강의가 끝난 빈 강의실이나 실험실, 연구실의 조명과 에어컨, 냉온수기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까지 에너지 손실을 줄일수 있어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개발된 모델과 절감된 비용을 통해, 교내 50여개 건물과 학교 밖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 사업 참여 중소기업 후속사업 지원과 지역사회 친환경화 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학생들에게는 전기차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넓은 교내 캠퍼스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의실로 뛰어들어 수업에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이동장치의 편의성을 체험하게 된다.

또 도서관 문서, 우편물 배달과 회



서울과기대는 15일 교내 테크노큐브동에서 교육부 선정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을 테마로 한 대학중점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에는 서울시, 한국연구재단, 13개 중소기업과 대학 석·박사 연구원이 참여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에너지타운 대학중점연구소 개소식 13개 중소기업·대학 연구원들 참여 "학·연·산 협력의 올바른 표본될 것"

수, 커피나 햄버거 등을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모빌리티 카트도 국내 벤처기업과 함께 자체 개발에 나선다. 이 장치가 상용화되면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 아파트단지나 지역 공원, 관광지, 공공기관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 대응형 고신뢰도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최적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리튬 이온, 인산철, 장수명 배터리 등과 고정밀 최적 충전 알고리즘을 기업들과 공동 개발하고 PCS(Power Conversion System, 전력변환장치)에 적용해 검증함으로써 대학중점연구소 과제 수행 목적과도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확대 보급에 대비해 안정적인 고효율 충전시스템과 로봇 개발에도 나선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2014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 추세다. 지난해 5만7000대에 이어 올해 12만대의 전기차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급속충전이 가능한 충전 로봇 개발을 위해 전담 연구진을 구성, 신재생발전원과 연동하



서울과기대 캠퍼스를 주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는 것은 물론 전력망과 수요연동도 가능한 V2G(Vehicle to Grid) 기술도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김종호 총장은 개소식 환영사에서 "서울과기대는 스마트에너지타운 개발 중점연구의 성공을 위해 연구진, 예산, 연구공간 등을 대폭 제공할 것"이라며 "대학의 연구, 참여기업의 성장, 대학생의 취업 등 학·연·산 협력의 표본이 되는 글로벌 스마트에너지타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은 지난 6월 착수해 서울과기대 내 테크노큐브동 5층과 10층에 주요 연구 시설과 인력을 이달 말까지 확보하고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3개 참여 중소기업 중 2개 기업은 기업연구소 입주 준비 중이며 플랫폼 개발과 전기차 충전 로봇 개발은 오는 9월 착수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21년 상반기까지 중·고교에 탈의실 완비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시설이 설치된다. 여학생의 체력저하와 신체활동 부족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여학생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이날 방문한 경인고는 학생 인권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9개의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다. 하지만 전국 중·고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는 65.2% (3710교) 수준으로 상당수 학교에는 탈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탈의시설 활용도가 낮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참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

세종대학교는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이 지난 10일~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가해 (주)에이알웍스 등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결과물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세종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년 연속 참가했다.

세종대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멀티컴퓨터의 충돌회피 알고리즘', 'IR 센서와 집벌을 이용한 타깃 추적 및 자동 정밀 착륙 시스템', '위성항법 보강 시스템 재현 장치', '멀티컴퓨터 착륙 시 지



세종대학교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이 지난 10일~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 참가해 (주)에이알웍스 등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결과물을 선보였다. /세종대

면 효과로 인한 프로펠러의 공력성능 및 유동장 변화에 대한 전산유체 해석 연구', '마커 인식 기반 자동 정밀 착륙을 위한 미션 컴퓨터 플랫폼(Mission Computer Platform)'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 관련 산학협력 연구결과물을 전시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한용수 기자

알바 평균 시급 8780원 강남3구 335원 더 받아

서울 > 세종 > 부산 > 경기 > 충남 > 대구 > 광주 > 전북 > 전남 > 경북 > 강원 > 충청 > 호남 > 제주

올해 상반기 전국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의 평균시급은 878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법정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430원 많은 금액이다.

16일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1월~6월 중 채용 공고 73만 9399건과 제출 이력서 등을 분석한 '2019년 청소년 및 청년(15세~34세)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780원이다.

지역별 아르바이트 일자리 채용 공고수는 서울(19만6671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15만6972건)▲부산(6만8563건)▲대구(5만3089건)▲인천(4만6884건)▲경남(3만9683건)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공고 기준 지역별 가장 높은 평균 시급을 기록한 곳은 서울(9020원)이었고, 이어 ▲세종(9006원)▲부산(8821원)▲경기(8799원)▲충

남(8789원)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9115원으로 서울지역 전체 아르바이트 시급 대비 95원, 전국 대비 335원 높았다.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필요로 하는 업종 1위는 음식점(15만74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편의점(12만9337건)▲일반주점·호프(5만532건)▲서빙·주방 기타(4만7119건)▲PC방(4만1027건)▲커피전문점(3만727건)▲패스트푸드(2만8930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았다.

업종별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아르바이트는 '개인지도·과외'로 1만4369원을 기록했다. 평균 시급 상위 업종으로는 ▲보조출연자(1만3854원)▲피팅모델(1만3163원)▲가사·육아도우미(1만1801원)▲나레이터모델(1만1672원)▲운전직(1만1353원)▲퀵서비스·택배(1만1013원)▲설문조사·리서치(1만651원)▲사진·촬영보조(1만604원)▲배달(1만594원)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면접서 부모 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오늘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실시 1회만 위반해도 과태료 300만원

채용 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직자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이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 수집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

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며,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손현경 기자 son89@

'만해대상'에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선정

동국대 임영웅씨·김우창 교수 등

동국대학교는 만해추진추진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가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3개 분야에서 전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으로, 올해 평화대상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고, 실천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문예대상은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했

다. 상금은 각 부문 별 1억 원이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와다 하루키 교수는 한일 간 골이 깊은 식민 지배와 화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온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으로 꼽힌다. 와다 교수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100주년을 맞은 2010년 5월 한일 양국 지식인 214명이 병합조약이 불의부당했고 당초부터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했다. /한용수 기자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 양성 3자간 업무협약 체결식
우리는행은 지난 15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NE와 '청년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명혁 우리는행 중소기업그룹 부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김은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왼쪽 첫번째), 장육진(가운데) KONE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현대차,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인 '2019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은 캠페인 전용 앱을 받은 뒤 달릴 때마다 앱을 실행하거나 전용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24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현대차



네이버 커넥트재단, SW개발자 양성 '부스트캠프' 개최
네이버의 비영리 교육재단 커넥트재단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실무 교육 프로그램 '부스트캠프 2019'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4회차를 맞이한 '부스트캠프 2019'는 "Connect Possibility(가능성을 연결합니다)"를 슬로건으로, 4주였던 기존 교육과정을 22주로 확대했다. 부스트캠프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한 코드스쿼드의 김정 멘토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넥슨네트웍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게임서비스·QA 등 31일까지 모집
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이후 서류 전형, 인성 검사 및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중 입사하게 된다.
넥슨네트웍스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게임서비스(게임운영), 게임QA(품질 관리) 등이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력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7월 31일 오후 8시까지 넥슨네트웍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이후 서류 전형, 인성 검사 및 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중 입사하게 된다.
넥슨네트웍스 권도영 경영지원실장은 "넥슨네트웍스는 혁신적인 게임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서비스 및 게임QA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서울유협동조합, 양파소비 촉진운동 동참
서울유협동조합은 양파소비 촉진운동에 동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양파소비 촉진운동은 지난 6월부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거창농협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신용국 서울유협동조합 거창공장장(왼쪽 네번째), 이화형 거창농협 조합장(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유협동조합

깨진 치아 치료



신태운 원장
치아건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달리다 넘어지면서 앞니가 땅에 부딪히거나 사랑, 얼음 등과 같은 딱딱한 음식을 깨물다 치아가 깨지는(파절)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치과병원을 찾아야 한다. 부모가 임의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아가 깨지거나 빠진 상태로 장기간 내버려 두면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최악의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려 인공치아를 심는 것

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깨진 치아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먼저 앞니가 깨진 상황이라면 신경 손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치아 색깔이 변했는지, 파절된 부위에 피가 나는지, 신경이 손상됐는지 정밀 진단을 한 후,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레진이나 라미네이트 등의 재료로 해당 부위를 수복해주면 간단하게 치료가 끝난다.

반면 신경이 손상되거나 노출되었다면 신경치료를 병행하여 크라운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보철치료를 시행해야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이때 어금니가 파절되었다면 하루빨리 크라운을 씌워줘야 한다. 어금니는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라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치아를 아예 상실했거나 뿌리 부분이 파절된 경우, 자연치아와 흡사

한 저작력과 심미성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플란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대체 치아 중 심미성과 기능성이 가장 뛰어나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이뤄져 있어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저작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재료나 치료방법이 모두 달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렴한 치료비용이나 병원의 유명세에 현혹되지 말고,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밖에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음식 섭취 후 즉시 양치질을 하고, 치료 후 당분간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 또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병행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 주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민솔치과 원장

삼성디스플레이, 아동시설 독서공간 새 단장

충남지역 시설 10곳 리모델링 추진
관련기관에 우수도서 1.5만권 기증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 내 아동 시설을 찾아 나후된 독서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2019 책올림'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올림 사업은 2014년부터 충남 지역 자매마을 등 50여 개소의 독서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약 10만권에 달하는 도서를 기부해 온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천안 소재 아동 시설인 익선원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아산, 논산, 보령, 금산, 홍성 등 충남의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0개



지난 15일 충남 아산 소재 아동시설인 '아인하우스' 독서공간 리모델링 개소식에서 오세현 아산시장(가운데), 김종근 삼성디스플레이 상무(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이상 시설의 독서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아동들이 꼭 읽어야 할 우수 도서 1만5000권을 충남 지역 아동 관련 기관에 기증했다. 독서공간 리모

델링 및 도서 구입 비용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마련한 매칭 펀드를 활용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티웨이항공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 서비스 개시

티웨이항공은 지난 15일 오전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입국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탑승 수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심에서 탑승 수속, 수하물 위탁, 출국 심사까지 완료한 뒤 공항에서는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부정기편과 코드셰어 항공편의 수속은 제한된다.

티웨이항공은 서울역, 광명역에서도 도심공항 탑승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역까지 추가해 승객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인사

- ◆ 통계청 ◇ 국장급 인사 △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안형준 ◇ 과장급 인사 △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산업동향과장 김보경 △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서비스업동향과장 민경삼 △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상영 △ 사회통계국 복지동향과장 김서영
- ◆ BNK금융지주 ◇ 부장대우 승진 △ 경영지원부 지영선 ◇ 3급 승진 △ 감사부 정해철 △ 경영지원부 황현이
- ◆ 서울대치과병원 △ 병원장 구영 △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 이인복 △ 대외협력실장 신터전 △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 박희경 △ 미래발전추진단장 권호범
- ◆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로기술단장 최기용
- ◆ 건설공제조합 ◇ 실장 △ 전략기획 김종복 △ 자산운용 강도영 ◇ 지점장 △ 인천 이향숙 △ 의정부 이덕환 △ 부천 이금환 △ 안

산 최원규 △ 원주 송명기 △ 내포 권상철 △ 천안 이상덕 △ 울산 공준식

부음

- ▲ 김월순 씨 별세, 구교용(육군정비창 주무관)·교성(BNK금융지주 상무) 씨 모친상 = 16일 오전 9시, 부산시민 장례식장 VIP실, 발인 18일 오전 ☎ 051-636-4444
- ▲ 이상삼(전 부산남부경찰서 경감)씨 별세, 명숙·민숙·균정·현정(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씨 부친상, 김규화(그룹원 이사)·심환기(자영업)·정환보(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씨 장인상 = 15일 오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 02-2030-4444
- ▲ 이태수씨 별세, 고찬식(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 모친상 = 16일 오전 11시20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43-279-0144

편의점, 간판 리뉴얼 붐... 세븐일레븐도 '새 옷'

브랜드 외관 디자인 새단장·BI 리뉴얼
CU는 2017년·GS25는 올해 BI 변경
세븐일레븐, 고객친화적 이미지 강화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브랜드 외관 디자인(파사드)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리뉴얼을 통해 고객 친화적 생활문화공간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92년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담은 브랜드 외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코리아세븐은 이번 외관 변경이 미국 본사의 BI 강화 전략과 맞물려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27년 미국 델러스에서 태동한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부터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구현을 위해 랩스토어를 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미국 세븐일레븐과 전략적 교류를 통해 한국 정서와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새로운 외관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친화 생활문화공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세븐일레븐의 브랜드 사인(Brand



nd Sign)은 브랜드 정체성이자 상징인 3선 색(주황·초록·빨강)은 유지하되, 기존 스퀘어형 로고 대신 '7-ELEVEN' 워터마크가 적용돼 젊고 신뢰있는 편의점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5세대를 맞게 된 세븐일레븐의 새로운 외관 디자인은 내달부터 신규 점포와 리뉴얼 점포를 중심으로 순차 확대된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세븐일레븐은 이번 변화를 통해 젊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 정립을 노린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이제 편의점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프 플랫폼이 됐고 고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담은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세븐일레븐은 국내 최초의 편의점 브랜드로서 오랜 전통 위에 현대의 트렌드 감성을 담아 가깝고 편리한 행복

충전소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지난 2012년 국내 독자 브랜드로 변신한 뒤, 5년 만인 2017년 BI 리뉴얼을 단행했다.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재정의하는 한편, 가맹점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GS25는 올해 3월 BI를 새롭게 변경하고 나섰다. BI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련되고 혁신적인 스토리를 담아 디자인을 젊게 바꿨다. 간판에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넣어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



헌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들의 BI 리뉴얼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대규모 투자보다 브랜드 리뉴얼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고객에겐 신선한 느낌을 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 /김민서 기자 min0812@

metroseoul.co.kr

왼쪽부터 CU 외관, GS25 외관. 아래는 세븐일레븐 외관 디자인. /CU·GS25·세븐일레븐



'일품진로 19년산' 출시... 9000명 한정판매

하이트진로

풍미 뛰어난 중간층 원액 선별해



하이트진로가 소주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19년 묵통 숙성 원액 100%로 완성한 '일품진로 19년산'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00년 역사의 전통과 양조기술을 통해 소주 시장의 품질 향상 및 프리미엄 소주 개발에 노력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일품진로 브랜드를 통해 국내 프리미엄 소주 시장 확대에 기여했으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일품진로 1924, 일품진로 18년산 등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은 세계 유명 주류품평회인 '2019 몽드셀렉션'에 참여해 증류주 부분 대상을 수상

일품진로 18년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 19년산을 출시하게 됐다. 최상의 품질을 구현한 단 9000명만 한정 판매한다.

일품진로 19년산은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층 원액만을 선별해 묵통에서 19년 이상 숙성해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주기적으로 묵통의 위치를 바꾸고 교체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최적의 온도, 습도를 맞추며 정성 들여 숙성했다.

19년산 역시 각 제품마다 리미티드

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뛰어난 제품력으로 출시와 함께 품귀 현상을 빚은

넘버를 부여했으며 가치에 걸맞은 패키지 구성으로 상품성을 높였다. 한정된 레스토랑, 업소, 고급 호텔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19년 이상 숙성한 원액만으로 제품을 완성한 만큼 매년 생산량 조절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며 슈퍼프리미엄 소주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회사로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참이슬, 진로 등 일반 소주부터 일품진로 등의 최상급 프리미엄 소주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프리미엄 소주 제품을 개발에 노력하며, 우리나라 대표 술인 '소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아워홈, 냉동도시락 브랜드 '온더고' 론칭

우삼겹불고기덮밥 등 3종 선봬



아워홈은 냉동도시락 브랜드 '온더고(ONTHEGO)'를 론칭하고 냉동도시락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브랜드명 '온더고'는 '이동 중', '끊임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워홈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디서나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출시한 '온더고' 냉동도시락 라인업은 우삼겹불고기덮밥, 함박스테이크 정식, 제육김치덮밥 등 모두 3종이다. '우삼겹 불고기 덮밥'은 저온 숙성한 특제소스를 베이스로 부드러운 직화 우삼겹 불고기와 오븐에 구운 양배추, 표고버섯, 브로콜리, 느타리버섯이 어우러진 제품이다. '함박스테이크 정식'은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두툽한 두

께의 함박스테이크에 구운 파프리카와 그린빈, 웨지감자를 가니쉬로 더했다. '제육김치덮밥'은 고슬고슬한 밥에 대파와 양파, 계란을 넣어 볶은 볶음밥과 매콤한 제육볶음김치를 곁들였다.

온더고 냉동도시락은 영하 40도 이하 급속동결공정을 통해 보존력과 조리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도 장점이다. 비닐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4~5분간 데우면 금방 조리한 듯한 풍미와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박인용 기자

유통 단신

KGC인삼공사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

KGC인삼공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40포를 라틴백 디자인 패키지에 담아 제품화했다. 5포 포장으로 가볍게 휴대할 수 있으며 지인에게 여행 기념품으로 선물하기도 좋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키미앤일이(KIMI AND 12)'와 협업한 삽화를 패키지 안에 담았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은 KGC인삼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다른 콘셉트와 구성으로 출시하고 있는 여름시즌 한정판 제품이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을 스틱형 포장에 담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어 외부활동 및 여행이 잦은 소비자 사이에서 여행 필수품으로 인기가 높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휴가철 건강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매년 출시되는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은 한정수량 제작돼 매번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으로 올해 여름 휴가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트래블 에디션'은 전국 정관장 매장 및 주요 백화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박인용 기자

롯데제과

'확! 깨는 졸음번쩍껌'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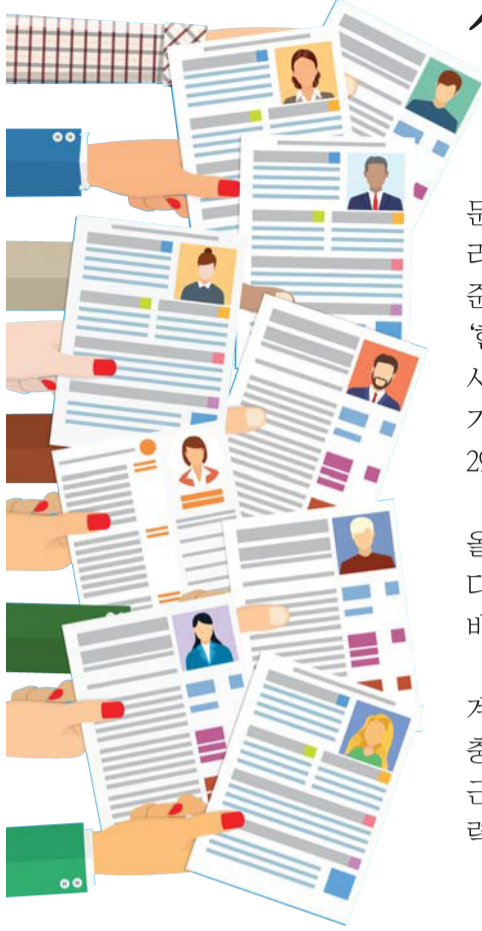
롯데제과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판형(板形)의 '확! 깨는 졸음번쩍껌'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졸음번쩍껌'은 2014년 용기에 담긴 바둑알 모양의 코팅껌 형태로 첫 선을 보였다. 천연카페인이랄 수 있는 과라나 추출물이 들어 있으며 멘톨향, 민트향 등을 사용, 강력한 휘산 작용으로 입안과 콧속을 시원하게 하여 졸음을 쫓아준다. /박인용 기자

CJ제일제당

'편의형 비비고 왕교자' 출시

CJ제일제당은 소비트렌드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편의형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편의형 제품은 '비비고 튀긴 왕교자'와 '비비고 찐 왕교자' 등 2종이다. 최근 간편화된 조리법 트렌드를 반영,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리도구인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의 특성에 맞춰 제품을 설계했다. /박인용 기자

제약업계 채용 문 ‘활짝’... 구직 큰 장 선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하반기 채용의 문을 활짝 연다. 상반기보다 채용을 늘리고,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인재를 꾸준히 충원하는 추세다. 하반기 열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역시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채용한 인력은 2900명에 달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 6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상반기(40여명) 채용 인원보다 1.5배 수준으로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

종근당은 하반기 14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포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전 부문이 대상이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240여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하반기 정확한 인원을 확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상반기보다 채용 늘리고 수시채용 추세

정하진 않았지만 상반기와 비슷한 100여명 수준을 채용한다. 한미약품은 상반기 수시채용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총 164명 가량의 인력을 채용했다.

GC녹십자는 상반기 신입 60여명을 포함해 총 90여명을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C녹십자는 지난해 하반기 80여명을 충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한 JW중외제약은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산업 채용의 큰 장도 선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현장 면접 중심의 참여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심층 면접부스 참여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17개사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총 47개 참여기업 중 33개사가 일반 상담부스로 참여하고, 11개사가 면접과 상담을 병행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현장 면접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현대약품 등 기업은 현장 면접에서 즉시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 구직

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9개사는 이번 채용 박람회 참여자들에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 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구주제약, 삼진제약 등 4개사는 1차 면접 등 일부 채용 면접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일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서류와 1차 면접을 면제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심층면접부스를 요청하는 것은 채용 박람회를 인재 채용의 실질적인 장으로 여긴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채용박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활발한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용박람회의 무료 부스 신청은 오는 19일 최종 마감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영... 긍정적 효과 ↑

소통여건 개선·심리적 안정에 도움
체력 관련 장기적 데이터 비교 필요

지난해 4월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간에 일부 병이 도박 및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국방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6일 한국국방연구원의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 36만여명(훈련병 제외)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 간의 소통도 활성화 됐다는 군 내부 인식도 많았다.

일선 부대에 고충상담을 받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의 79%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병영생활전문상담

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와 단절된 병영생활에서 외부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은 군 생활 적응과 만족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의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체력검정 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특급 13.8%에서 15.1% ▲1급 23.2%에서 22.9% ▲2급 22.4%에서 22.6% ▲3급 23.2%에서 21.9% ▲불합격 17.4%에서 17.5%의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간부들로부터 “병의 체력단련 할애 시간이 줄고 있어,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해야 할 것 같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세계 첫 웨장암 조기진단키트 유럽서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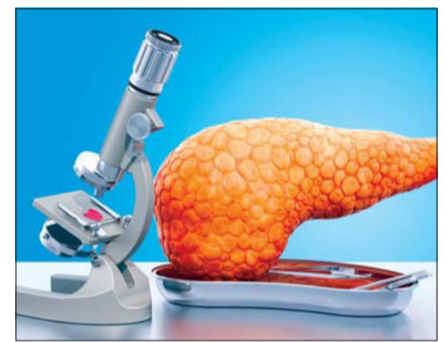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
연내 최종취득 계획... 하반기 임상 돌입

JW홀딩스가 개발한 웨장암 진단키트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특허를 받았다.

JW홀딩스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웨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에 대해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JW홀딩스는 향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대상 개별 진입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특허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다.

JW홀딩스의 원천기술은 웨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견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연세대 백용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다.



웨장암은 국내에서만 매년 약 66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또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11%로 전체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난치성 질환이다. 그러나 웨장암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 싸여 있는데다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웨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적 항원 ‘CA19-9’를 검사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초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CFB(보체인자B)’로 웨장암을 진단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에서 JW홀딩스가 유일하다. JW홀딩스는 웨장암 조기진단 원천기

술과 관련해 2016년 국내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8년 일본, 올해 5월 중국 특허를 획득했고, 현재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홀딩스는 현재 자회사 JW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 CFB를 포함하는 다중 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제품 성능 평가 임상 진행 후 탐색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웨장암 조기 진단 기술 특허 대상국가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JW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과 함께 혁신적인 체외진단 인프라를 구축해 진단 분야 미중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웨장암 치료 및 진단 관련 시장은 2015년 17억3000만 달러(약 2조원)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 31억87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경 기자

“여드름 흉터, 복합 치료가 효과적”

삼성서울병원 이종희 교수 연구팀
레이저-줄기세포배양액 치료 병행

여드름이 남긴 흉터를 없애는 데 레이저 치료와 줄기세포배양액 치료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종희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흡연 등 치료 이외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소를 배제한 뒤 여드름 흉터가 있는 환자 15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어 1주일 동안 얼굴 한 쪽 볼에 인체줄기세포배양액과 히알

루론산 복합제품을, 다른 쪽에는 히알루론산 제품만 바르도록 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줄기세포배양액을 바른 쪽의 경우 흉터 크기가 치료 시작 후 두 달까지 처음보다 평균 23.5% 줄었다. 바르지 않은 쪽 볼은 15.0%로 8.5% 차이가 났다. 모공 크기도 큰 변화를 보였다. 치료 2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줄기세포배양액을 바른 쪽의 모공 크기는 평균 37.6% 감소하여 바르지 않은 쪽(15.9%)과 대조를 이뤘다.

줄기세포는 탁월한 재생 능력이 있지만 물에 잘 녹는 성질 탓에 피부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 치료와의 복합요법이 흉터 및 모공 개선에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세경 기자

현대그린푸드-SCL 헬스케어그룹 환자 식단서비스 MOU

현대그린푸드 의료서비스기업 SCL 헬스케어그룹과 손잡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식을 활용한 식단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본원에서 SCL 헬스케어그룹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과 이경률 SCL 헬스케어그룹 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Smart Health Care Service) 모델 구축 ▲식단을 활용한 다각도의 임상 연구 추진 ▲고객의 건강 강화를 위한 유·무형 서비스 제공 등

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건강식을 활용한 식단 관리와 치료·운동요법을 병행하는 ‘통합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바이오마커(bio-marker,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생체 지표)’ 변화 추이를 분석해, 제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헬스케어푸드(종합 건강식)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단계급식뿐 아니라



16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사장(왼쪽)과 이경률 SCL 헬스케어그룹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B2C 제품 개발에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헬스케어푸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CL 헬스케어그룹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하나로의료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

무료혜택·공연·선물... 꿀팁까지 즐겨야 진짜 '호캉스'!

서울웨스턴조선호텔

얼리 체크인·라이트체크아웃 택1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3박할 경우 오션뷰로 업그레이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반고흐 티켓 증정... 전시장 인접

제주신라호텔 수영복세탁 서비스



서머 칠 아웃 옛 JW 패키지.

/JW 메리어트 서울



수영복 세탁 서비스.

/제주신라호텔



트로피컬 서머 패키지.

/롯데호텔서울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일명 '호캉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호텔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비싸고,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 인식 때문이다.

호텔들은 다양한 콘셉트의 여름 패키지를 선보이며 문턱을 낮추고 있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구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고객을 호텔로 손쉽게 이끌기 위함이다.

이렇다보니 완벽한 '호캉스'를 위한 정보 수집은 필수가 됐다. 가격별, 취향별 완벽한 패키지 상품을 찾기 위해선 발품을 팔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겨야 '제대로' 즐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료 혜택 多... '가성비' 챙겨볼까

호캉스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쉽사리

지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를 챙기고 싶은 고객이라면 연박이나 무료 서비스 특전이 있는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같은 가격이라도 구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16일 말했다.

늦은 체크인과 이른 체크아웃이 불만이었다면 서울웨스턴조선호텔의 '서머 팝 히트' 패키지에 주목해 볼만 하다. 오는 25일까지 투숙객 대상으로 한정 진행되는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얼리 체크인(오후 12시)과 라이트 체크인(오후 3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은 오후 12시다.

숙박 기간에 따라 무료 혜택이 달라지는 곳도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의 '제주 쿨 서머 데이'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2박시 호텔 내 베이커리 '마고'의 아이스크림 1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3박시 오션뷰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아이 한정 뷔페 무료 서비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의 '서머 아이러브' 패키지에는 세탁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1박당 최대 10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훌리데이 인 인천 송도의 '훌리데이 인 서

머' 패키지는 성인을 동반한 아이 고객에게 아침, 점심, 저녁 뷔페 식사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브랜드 협업...이색 선물 '풍성'

특급호텔들은 브랜드와의 이색 협업을 통해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호텔서울의 '트로피컬 서머' 패키지를 주말에 이용하는 고객은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 '모스키노'의 우산을 받을 수 있다. 또, 모스키노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향수 바우처가 증정된다.

서울웨스턴조선호텔은 '서머 팝 히

트'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브리티쉬 레인백을 제공한다. 패션 잡화 브랜드 '피브레노'와 함께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호캉스'와 함께 문화·예술 즐기자

특급호텔들은 도심에 위치한 만큼 전시회, 공연 등이 이뤄지는 문화공간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문화·예술 패키지가 쏟아지는 이유다.

JW 메리어트 서울의 '서머 칠 아웃 옛' 패키지를 이용하면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오는 9월 8일까지 개최되는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티켓이 2매 제공된다. 희귀 작품과 올해 신작 등 총 200여 점의 일러스트 원화를 감상할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고흐 백 인 타임' 패키지를 내놨다. 우정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티켓 2매가 포함돼 있다. 전시장이 호텔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만큼 문화 감증을 해소하고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 패키지 구성은 가성비를 찾는 고객에 맞도록 다양한 특전이 있어 경제적"이라며 "얼리버드 혜택이나 공식 홈페이지 예약을 통한 할인 등을 이용하면 더욱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고객정보 안전성' 인정

업계 최초 'ISMS-P' 인증 획득

롯데면세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P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통·서비스·면세점 업계 최초다.

ISMS-P 인증은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기업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한다.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 관련 22개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의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롯데정보통신의 보안컨설팅을 통해 정보자산 식별, 취약점 점검, 위험평가,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보안관리체계를 준비했다.

롯데면세점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모두를 고려해 통합된 ISMS-P을 취득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기술 및 이슈 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보호 조치까지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형태를 갖추게 됐다. /김민서 기자

“韓·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 부산으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 지역 SNS 해외기자단 경상권 팸투어

한국관광공사는 아시아중동지역 국내·외 SNS 기자단 '와우코리아 서포터즈'를 초청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상권 관광 홍보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해외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동남아 6개국 및 인도, 중동 지역 출신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과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글로벌 와우코리아 서포터즈' 10명 등 30여 명을 초청한다. 이들은 오는 11월 25~26일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을 기점으로, 울산과 대구로 이어지는 경상권 관광코스를 홍보할 수 있는 팸투어에 나선다.

팸투어 첫 날은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및 더베이 101 등으로



2019 지역팀 합동 SNS 기자단 발대식.

/한국관광공사

구성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담 코스', 최정상 인기 아이돌 강 다니엘의 고향인 영도구 중심 '강다니엘 코스', 감천문화마을 등의 '감천·초량 코스' 등 3개 코스를 둘러본다.

울산에서는 중구원도심 일대와 대화강 십리대숲 등 '큰애기 투어코스'를 살펴보고, 대구에서는 '이열치열 대프리카 여행'을 테마로 근대 골목과 '치맥

페스티벌'을 즐긴다.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 김형준 팀장은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한 해"라며 "개최지 부산 중심의 경상권 홍보를 통해 아시아중동지역 방한객의 지방 유치 확대와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빈폴, '1989년 감성' 담은 한정판 티셔츠

빈폴은 '1989 리미티드 에디션(사진)'을 온라인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에디션은 브랜드 론칭 연도인 1989년의 빈폴 카탈로그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이 반영된 루즈핏 반팔 티셔츠로, 맨과 레이다스 각각 1989개씩 한정 생산됐다. 봄·여름 시즌 레트로 트렌드와 함께 여름철 스타일링에 위트를 더한 아이템으로 활용도가 높다.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 옐로우, 핑크, 라이트 그린, 카키, 와인



등으로 출시됐다.

리미티드 에디션 숫자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리미티드 에디션에 부착된 숫자 택 1~1989년까지의 번호 중 89, 189, 289, 389, 489, 589, 689, 789, 889, 989인 경우

우에 한해 빈폴 피크닉 세트(매트·텀블러·빨대)를 증정한다.

판매처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통합 온라인몰 SSF샵과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다. /김민서 기자

“총 3억 규모 ‘럭키쿠폰팩’서 행운 잡아라”

롯데하이마트쇼핑몰

롯데하이마트쇼핑몰은 오는 24일까지 총 3억 원 규모의 '럭키쿠폰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쇼핑몰은 이벤트를 통해 구매 고객 777명에게 최대 10% 할인 쿠폰을 매일 선착순 증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선착순 할인쿠폰은 10%, 7%, 5% 세 가지로 각각 100명, 200명, 477명에게 증정된다.

10% 할인쿠폰으로는 최대 7만 원, 7% 할인쿠폰으로는 최대 5만 원, 5% 할인쿠폰으로는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된다. 선착순 쿠폰은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 롯데하이마트쇼핑몰의 '어메

이징 텐데이즈(AMAZING 10 DAY S)' 행사 페이지로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동안 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는 무료배송 쿠폰이 지급된다. 무료배송 쿠폰은 행사기간 내 고객 1명당 1회 발급된다.

'럭키쿠폰팩' 이벤트는 롯데하이마트쇼핑몰이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는 '어메이징 텐데이즈' 행사의 일환이다.

/김민서 기자

호텔식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로얄층)



침대,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렌지에서 에어프라이어 등 풀옵션 제공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호텔식 서비스는 유상제공 됩니다



호텔
100%
분양완료

10년 전문
임대관리 업체 관리계약 체결!

* 임대관리 계약은 스마트하우스 운영사인 일애셋마스터리스(주)와의 계약입니다.

전주 최초
스마트하우스 직접 운영!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 공실관리 OK!
- 행정관리 OK!
- 시설관리 OK!
- 연체관리 OK!

공실과 수익률 걱정이 없이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가 직접관리

**전주 최초 호텔식
서비스 제공 오피스텔!**

- 공실과 수익률 걱정없는 **전문 임대관리 업체 계약**
- 베스트웨스턴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호텔식 조식서비스**
- 마트와 재래시장상권을 한걸음에 누리는 **생활편의입지**

- 오피스텔과 호텔의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최고급 편의시설**
- 명불허전! 걸어서 누리는 세계의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옆**
- 전주 시청 인접으로 **풍부한 수요를 품은 직주근접**

시행사 **KAIT 한국자산신탁** 위탁사 **MERIT+PLUS DEVELOPMENT & MARKETING** 시공사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청약계약안내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9401-04-274501**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청약금은 미계약시 전액환불해드립니다

스마트하우스 1522-1966

● 분양신고 번호 : 2017-건축과-분양신고-7(2017. 11. 24) ● 건축허가 : 2017년 08월 22일
● 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70012(한국자산신탁) ● 영입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준공예정일 : 2020년 9월 예정

* 상기 CG 및 이미지는, 일애셋 마스터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아파트 서비스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자금관리 및 신축사업 한국자산신탁(주)에 의존합니다. * 전주 상해 및 전라남도 목포시, 전남 무안군 고흥시와 주변 현장은 인, 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에는 이와 무관합니다. * 수익분배권은 신축사업 한국자산신탁(주)에 무관하며 시행사 메리트플러스에서 공중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콘티넨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 靑에 지원요청”

〈고형폐기물〉

강인규 나주시장
“갈등·반목에 도시발전 더디져
폐쇄비용 주체 못해 새 국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나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해 이주민 현황 및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이주민 명패를 관람하고 있다. /뉴스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해묵은 갈등 해결에 국가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 줄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빛가람전망대 방문 당시 강인규 시장이 나주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혁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 문제와 관련된 설명 자

료와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3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2년째 치달고 있는 장기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특히 국민통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나주 SRF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 SRF 갈등은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실시’라는 큰 틀의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해 냈지만 ‘SRF 열병합발전 시설 폐쇄 시 손실보존(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SRF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

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물밑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얽혀 있는 ‘손실보존 주체’를 단기간에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대위·전남도·나주시는 단계별로 큰 틀에서 먼저 1단계로 ‘3개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와 ‘주민 직접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2단계로 ‘손실보존비용 처리’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 건설·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존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존비용 부담 안건은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돼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유해성이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설 준공후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800여억원(SRF 시설 1600억원+LNG 시설 12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사용 연료(SRF)의 97%가 광주 등 타 지역 생활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주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

또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배출 기준치 이내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인천 서구, 대기방지시설 교체 40억 지원

인천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을 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배출업소가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구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을 원칙으로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

군산시, 장기부실채권 50억 빚탕감

군산시는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와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협이 보유한 장기부실채권 49억9000만원의 빚탕감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올해 4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시책인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의 첫 결실을 맺은 것.

이날 빚탕감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와 관내 10개 지역신협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탕감금액은 약 49억 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662만원, 이자는 985만원에 이른다.

이날 탕감을 통해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받았던 303명의 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군산=봉채영 기자

장성군, 시도대항 조정대회 20일 개최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12년연속 전국규모 대회 유치

제 3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로써 장성군은 2008년 전국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무려 12년 연속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를 유치하며, 수상 스포츠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장성읍·북일면·북이면·북하면에 걸쳐있는 장성호는 1976년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 1단계 사업을 통해 준공됐다. 유효 저수량 1억t, 유역 면적 1만 2000여 ha에 이를 정도로 웅장해 ‘내륙의 바다’라 불린다.

장성호의 맑은 물도 수상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은 요인 중 하나다.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고광선 감독은 “수질이 좋지 못한 곳에서 훈련이나 시합을 하다 보면 노(오어, oar)에 수초 등의



장성호 나무데크길과 어우러진 조정경기장.

이물질이 끼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성호의 깨끗한 수질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에는 전국 40여 개 팀 400여 명의 남녀 선수가 참가한다. 일반부와 대학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등 8개 부문에 싱글스컬, 더블스컬, 타수 없는 페어, 타수 없는 포어, 에이트

등 5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장성군에서는 군청 소속 일반부 주찬영, 최수진 선수를 비롯해 12명의 관내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부문에 출전한다. 장성군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주찬영 선수는 “우리군이 출전하는 싱글스컬, 더블스컬 부문에서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7일 (수) 음력 : 6월 15일

수도권 날씨 32 ~ 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4 | 해질 / 19:52

연천 20/31, 동두천 21/31, 가평 20/32, 파주 20/31, 서울 23/32, 양평 21/32, 인천 23/29, 수원 23/31, 용인 23/31, 평택 21/32, 백령도 20/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학생 2만여명 세계수영대회 관람

2만 명에 가까운 광주 학생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체험학습으로 관람한다.

학생들은 세계적 행사를 눈으로 직접 보며 국제적 시각과 함께 광주정신과 도전정신을 함께 배우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하며 스포츠 산업분야에 대한 꿈을 드러냈다.

대회 기간 동안 광주에선 89개교 1만 8336명, 전남에선 53개교 4528명이 수영대회장을 관람을 예약했다.

16일에는 광주 학생 4959명이 대거

경기장을 찾아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경기를 관람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남부대학교 수구장에서 열린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러시아’의 여자 수구 경기를 교육청 직원 100여 명, 전 자공업고등학교와 첨단중학교 등 학생·교직원 1200여 명과 함께 관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28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지는 다이빙 등 모든 종목에 대해 학생 현장체험학습용 경기관람 입장권을 예매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 신안군 농수산물판매유통과 신설

전남 신안군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했으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판매유통과’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농수산물판매유통과’는 전남 공무원 7명이 생산자, 유통업체와 함께 직접 판촉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향우회, 신안출신 목회자, 군부대, 대형 식품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금융] 신한카드 600만 자영업자 대상 CB사업 진출 04



Life

[산업] 현대로템 폭염도 견디는 열차 견인전동기 개발 05



남산 케이블카 57년 독점 특혜논란... 운영권 회수 여론

안전사고 반복 발생·운영 독점에 운영기간 조정·사고방지 대책 촉구

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57년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후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이듬해부터 독점 운영해 와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삭도공업은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했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았고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씨가 사망한 후 아들인 한광수(78)씨가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현재 회사 지분 20%는 한대표가 소



14일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매표소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국내외 관광객 20명을 태운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펜스와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유하고 있고,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 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다. 결국 이 회사는 한씨와 이씨 일가가 지분 100%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고 감사 역시 가족이 맞고 있어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 매출 130억여원을 올렸고, 영업이익으로 52억5000만원을 벌었다. 이 회사의 2016년 이전 경영과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남산 케이블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으나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1993년 케이블카 운전자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고, 1995년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객 3명이 다쳤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긴급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2일 사고 이후 '기기 재정비'를 이유로 케이블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권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

원의 입지적특성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과 협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어르신 간병·형광등 교체... '돌봄SOS센터' 문 연다 "공원에서 여름방학 체험활동 즐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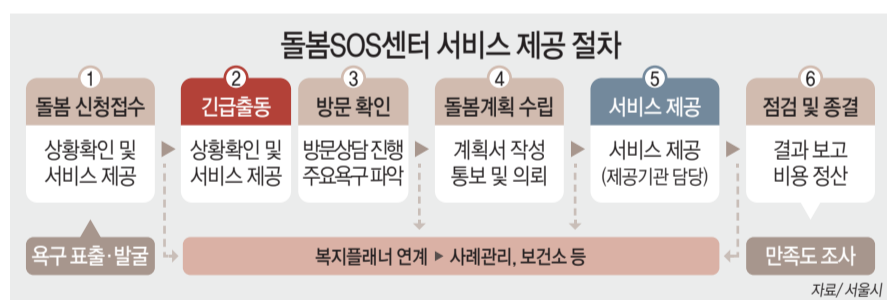
5개 자치구 88개 동서 시범 운영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우선 지원

65세 어르신 단독가구 L씨는 골절 수술 후 신속히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도움을 요청할 서비스가 없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장애인 자녀를 둔 J씨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변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몇 일간 자녀를 안심하고 맡아 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하게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나 형광등 교체부터 병원 동행까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18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 동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되는 돌봄SOS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 시설과 복지관, 보건소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가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총 8가지다. ▲요양보호사나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일시재가 서비스(연간 최대 60시간) ▲ 시설 입소 지원(연간 최대 14일) ▲ 외출 활동을 돕는 이동지원(연 최대 36시간)▲

가정 내 간단한 수리와 보수를 지원하는 주거 편의(연 최대 4회) ▲ 식사 지원(연 최대 30회) ▲ 안부 확인 등이다.

지원 대상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영유아 맞춤형 '복스타트' 시범 운영

18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서울시는 올해부터 18개월 이하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복스타트 독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독서 프로그램, 육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육아 커뮤니티와 자원활동가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총예산 14억원을 자치구에 배분하면 자치구가 시의 가이드라

인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사업에는 구립공공도서관 123곳, 공·사립 작은도서관 347곳, 교육청도서관 16곳, 기타 유관기관 529곳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실무협의체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연말에 '서울형 복스타트' 사업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21개 공원에서 117가지 프로그램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서울내 21개 공원에서 11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라매공원 등 6개 공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총 19종의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보라매공원 '어린이조경학교' ▲서울숲 '방학엔 숲으로' ▲길동생태공원의 '방학특집 자연탐사대' ▲월드컵공원 난지야간생태탐사대 등이 운영된다. 길동생태공원, 중랑캠핑숲 등 8개 공원에서는 누에, 반딧불이, 거미, 매미, 꿀벌 등 곤충에 대해 배우고 직접 관찰



길동생태공원. /서울시

하는 자연관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산공원 호연당(好賢堂)과 낙산공원에서 역사와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전문가 시민감사관 68명 위촉

법률·회계 등 분야별 도정 감사 나서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경기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담감사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우린에게 이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달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기만 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연스러운 혁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